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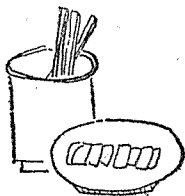
따라서 수술대상환자는 요추디스크 탈출증환자중에서 충분한 기간동안 절대 안정을 취한 환자 가운데서 선택되어야 한다.

수술은 신경외과에서 시행하는 맹장수술정도이며 수술이 결정되면 주저없이 수술을 받는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신경통은 고치기 어려운 병으로 알려져 있고 또 신경통이란 말은 그런 병의 명사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원인치료가 가능한 좌골신경통은 이와같이 간단한 치료법으로 쉽게 고칠수 있는 것이다.

<필자=서울의대 신경외과 조교수·의박>

## 실명(失明)에 이르는 병



■ 金 在 浩

### <이런일 저런일>

#### 결혼 연령

사람의 결혼연령은 시대에 따라 변한다. 예전엔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는 8~9세, 여자 12~13세에 결혼을 시킨일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 남자는 30이 넘어도 늦었다고 생각지 않으며 여자는 25세전후가 적령기 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도 지구상에 조혼국(早婚國)이 있다. 인도의 경우 여자는 14.5세, 남자는 20세가 평균결혼연령 이라고.

그런가하면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여자는 26.5세, 남자는 31.4세에 결혼한다니 인도의 신혼부부들이 볼 때는 아빠와 엄마가 결혼하는 것처럼 보일가.

### 녹내장(綠內障)을 증 심으로

안질환중에서 실명에 이르는 병은 비단 녹내장 뿐만은 아니다. 안외상(外傷), 고도근시, 원시, 사시로 인한 약시(弱視), 세균감염, 포도막염, 각막혼탁, 백내장(렌즈의 혼탁), 흑내장(시중추의 병), 시신경, 망막의 질환, 및 눈속의 혹(종양) 등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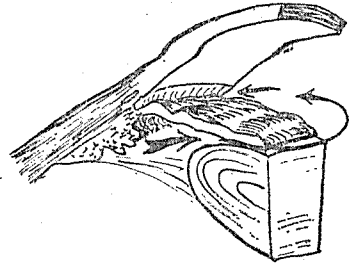
이러한 실명으로 이르는 병은 일찌기 검사하여 속히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예방할수 있는 것들이다. 녹내장에도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만 여기서서는 흔히 보는 단순성 녹내장에 대해서만 기술하겠다.

## 단순성녹내장(單純性綠內障)이란?

가령 예를 들면 수도꼭지에서 수도물은 정상으로 잘 나오는데, 밑의 하수구 구멍의 채반이에 찌꺼기가 많이 끼어서 물이 밖으로 잘 빠져 나가지 못한다고 하자! 그러면 물이 하수구에 고여서 밖으로 넘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 눈알속에서도 특히 모양체에서는 방수(房水)가 생산되어 나와서 이것이 후방(后房)→동공→전방(前房)으로 나가서 하수구가 되는 전방각(前房角)에서 눈알 밖으로 빠져 나가게 되며 이러한 물의 생산과 배출이 잘 조절되어 항상 정상 안압(15~21mmHg)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런기전도 40세 이상의 나이를 먹게 되면, 얼골에 주름살이 생기는 것처럼 수도 하수구에 고장이 생겨서 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듯이 결국 눈알이 만만하게 된다. 안압을 측정하여 보면 25mmHg 이상 올라가게 된다. 그러나 환자는 별로 증상을 느끼지 못하고 지내는 수가 있는데, 간혹 발작되어 안압상승이 생길 때에는 등불을 보면 불빛 주위에 무지개 모양의 둥근 윤곽이 나타나면서 눈이 거북하고(때로는 아프고), 머리도 조금 아프지만, 민감하지 않은 환자는 “실마”하고 그저 내버려 두면 낫겠지, 아니면 고작해야 아스피린, 진통제 정도 약국에서 사먹고 버티기 일쑤이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면 점차로 시신경위축이 생기게 되어서 시야가 좁아지게되며 마치 방속에서 밖을 보는 것처럼 시야 주변부가 조금씩



방수(房水)의 순환

모양체에서 생산된 방수는 후방 동공형을 지나 전방에 나가게 되며 전방각(前房角)에서 밖으로 나가게 된다.

안보이다가 말기에 가까우면 마치 터널굴속에 들어가서 밖을 보는 것처럼 가운데만 조금 보일뿐 주변은 캄캄하게 안보이게 된다. 이쯤되고 난 다음에 안과병원에 진찰받으러 오면 이미 때가 늦는다. 끝까지 시력은 1.0 정상으로 나오는 것이 특징이며 이러한 때문에 환자 자신이 더 겁을 안먹는지도 모르겠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성 녹내장은 부인들에게 많은데 특히 화를 잘 내고 흥분을 잘하는 여자들에게 많다. 그리고 어두운 곳 극장 구경등도 본병의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이유는 어두운 곳에서는 우리 눈속의 동공이 커지게 되어(散瞳), 이때문에 전방각이 좁혀져서 방수의 배전이 장애되기 때문이다.

40대의 사람, 특히 부인들에게 흔히 있는 눈병, 녹내장은 별로 심한 통증도 없이 서서히 주변시야의 결손과 함께 나타나서 결국 재귀불능의 실명으로 두눈이 머는 무서운 병이

다. 그래서 선진 외국에서는 신체검사 때에는 으레 시력검사, 색맹검사와 함께 반드시 안압측정을 하여 녹내장·조기·발견(早期發見) 조기치료에 힘쓰고 있다고 한다.

또 이러한 무서운 눈병은 텍사메타손 안약을 잘못 오래 사용 하여서도 생기는데 가령 시중약국에서 잘못 사서 넣은 텍사메타손 안약 때문에 녹내장이 생겨서 실명된 처녀 대학생 또는 기혼 남자, 환자등 잊혀지지 않는 눈먼 사람들이 내 주위에는 많았다. 외국처럼 의약분업(醫藥分業)이 되어 있으면 이러한 비참한 의약공해(醫藥公害)는 안생길텐데, 코티손제약은 의사처방 없이는 약국에서 절대로 팔아서는 안된다! 약국에서 의사처방없이 팔수 있는 약은 소화제, 감기약, 비타민 등등뿐이다.

### 치료는 어떻게?

약물치료를 원칙으로 하며 축동제(縮瞳劑), 안압하강제의 투여를 실시하면서 자주 안압, 안저검사 및 시야검사 등을 하여 병의 진행을 파악해야 하며, 만일 병이 진행되고 있으면 부득이 수술을 하여야 한다. 수술법에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으며, 원리는 막힌 하수구를 뚫어 주어서 직접 통하게 하든가, 아니면 옆에 다른 배수로를 개통해주는 것이다.

### 녹내장을 예방하자

40세 이상의 사람은 적어도 3년에 한번씩 안압측정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기신체검사 때에는 안압측정도

함께 하여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하여야 한다.

### 녹내장 환자의 수칙(守則)

- ① 안과의사의 지시를 지킨다. 예약시간에 재검하는 것을 잊지 말것.
- ② 만일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보이거나 눈이 아프거나 시력이 감퇴되는 때는 즉시 진찰을 받을 것.
- ③ 가급적이면 흥분, 분노, 불안 또는 실망등을 피할 것.
- ④ 위장기능이 규칙적이어야 한다.
- ⑤ 몸에 꼭 맞는 옷이나 기타 장식품은 피할것.
- ⑥ 혈액순환이 좋도록 한다. 만일 하루 종일 앉아있는 직업이라면 작업전후에 피로하지 않을 정도로 걷는다.
- ⑦ 이(齒)는 깨끗하고 건강하게, 또 잠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것.
- ⑧ 커피 차는 하루 한두번 정도로 먹고 술을 먹지 않는다.
- ⑨ 침실은 잘 통풍되어야 하고, 섭시 25도 정도의 적당한 실온을 유지한다.
- ⑩ 가급적이면 암실에 있지 말것. 영화구경은 의사의 허락하에 갈수 있으며, 기분을 명랑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영화를 선택하여 본다.
- ⑪ 안과의사의 허가없이 함부로 안약을 사서 점안 하든가 또는 눈을 씻지 말것. 이것은 오히려 눈에 해로울 수도 있다.
- ⑫ 주기적으로 매년 병원에 가서 신체검사를 받을 것.

〈필자=가톨릭醫大眼科 부교수·의박〉